

나주시, 주말 가족 나들이는 '향교와 놀자'와 함께

12일 다례체험 등 놀이·체험 다채
참가비 5천원, 5가족씩 3차례 진행
참여 신청, 공식 SNS서 작성해 제출

나주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전통 체험 프로그램인 '향교랑 놀자'를 12일 나주향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향교랑 놀자는 문화재청에서 후원하는 2022년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 예절과 문화, 다양한 놀이 체험 등을 제공한다. 이번 달 프로그램은 나주향교 동익랑에서 전통 차 예절과 시음 방법 등을 배우는 '다례 체험'을 13시부

터 18시까지 3회차로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 공식 SNS(밴드)에서 '구글 폼'을 작성해 사전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5천원이며 5가족씩 13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에 각각 시작한다. 다례체험 외에도 향교 내부에서는 식빵피자 등을 만들 수 있는 주전부리코너(참가비 1천원)와 전래 놀이, 이야기 할머니, 향교해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

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다례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 예절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말의 여유와 가족 간 화목을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는 나주시 역사관광과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나주향교 후원,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운영한다. /서서택 기자

화순군, 농어민수당 60만 원 추가 지급
코로나19 한시적...농어가당 총 120만 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자체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시적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가당 6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화순 농어가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60만 원)에 화순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시적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더해 총 120만 원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도비 40%·시군비 60%)씩 지급하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별개로 올해 한시적(1회)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판로 위축, 인건비 상승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꾀

하기 위해 추가 수당 예산 54억 원(군비 100%)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지급 대상자 8572명을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102억8640만 원이고, 전액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와 같다. 이에 따라 추가 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간(6. 8. ~ 6. 30.)에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농협화순군지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수당을 받으면 된다. /남호경 기자

담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거리상담 진행

담양군에서 담양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거리상담 '톡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톡톡'은 담양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알맞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거리,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담이나 홍보 외에도 우울, 불안, 스마트폰 중독 자가 검사와 캡슐 뽑기 놀이 등 청소년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된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숙 센터장은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하고 밝은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체적인 거리상담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인 군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다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고히 하고 있다. /강종연 기자



영광군은 500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관광객들의 호평 속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3년 만에 개최한 이번 축제에서는 1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축제임을 입증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2022 영광법성포단오제 성료

영광군은 500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관광객들의 호평 속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3년 만에 개최한 이번 축제에서는 1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 용왕제·선유놀이·숲쟁이 전국국악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산신제·당산제·무속수륙제 등 제전의식, 씨름대회·민속놀이(투호,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창포 머리감기·그네뛰기 등 전통적으로 단오절에 행해진 풍속과 쑥떡메치기·단오부채 만들기 등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찰보리·모시잇송편·굴비·천일염 특산품 홍보 및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관도 운영돼 볼

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이해 KBS와 함께하는 특별 행사인 국악한마당, 전국노래자랑 개최와 한눈에 보는 법성포단오제 식전공연, KH그룹 IHQ 가요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단오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진 기자

준을 600m로 줄여, 대상 지역을 9개 읍·면 52개 마을로 늘릴 계획이다. 월별로 4매씩 지급되던 종이 이용권도 전용 카드로 대체한다. 매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4회분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용 주민은 물론, 종이 이용권과 택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왔던 택시 사업자들도 한결 편리해진다. 군 관계자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시행이 노약자,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대상 마을 확대
내달부터 거리기준 ↓·9개 읍면 52개 마을 지원

장성군이 '100원 행복택시' 대상 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행복택시 전용 카드로 지급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100원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면소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장성군은 오는 7월부터 100원 행복택시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마을회관~버스정류장 간 거리 기

준을 600m로 줄여, 대상 지역을 9개 읍·면 52개 마을로 늘릴 계획이다. 월별로 4매씩 지급되던 종이 이용권도 전용 카드로 대체한다. 매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4회분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용 주민은 물론, 종이 이용권과 택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왔던 택시 사업자들도 한결 편리해진다. 군 관계자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시행이 노약자,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